

# 국어 영역

## 제 1 교시

1

[1 ~ 3] 다음은 강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식품 안전 연구소의 ○○○입니다. 여러분은 식품을 구매할 때 식품 포장지에서 어떤 정보를 주로 보시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네, 주로 영양 성분을 보시는군요. 하지만 식품 포장지에는 영양 성분 외에도 유의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식품 포장지의 표시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자료 제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식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보게 되는 주표시면입니다. 이렇게 주표시면에는 제품명과 내용량 및 열량, 그리고 상표 등이 표시돼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요. 제품명에 ‘향’ 자가 보이시나요? 제품명에 특정 맛이나 향이 표시되어 있고 그 맛이나 향을 내기 위한 원재료를 합성 향료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복숭아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 향료가 첨가되었다는 문구도 제품명 주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화면을 보시죠. (㉡ 자료 제시) 이 화면은 다른 식품의 주표시면인데, 여기에서는 어떤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제품명을 보고 소고기만으로 만든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래쪽을 보시면, 소고기와 함께 돼지고기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식품과 같이 식육가공품은 가장 많이 사용한 식육의 종류를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식품에 포함된 모든 식육의 종류와 함량이 주표시면에 표시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 자료 제시) 이 화면은 앞서 보신 식품 포장지의 다른 면을 확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식품유형, 원재료명, 유통기한, 주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요. 이렇게 표시사항을 한데 모아 표시한 면을 정보표시면이라고 합니다. 이 중 일부만 살펴 보겠습니다. 여기 바탕색과 다르게 표시된 부분이 보이시죠? 이곳은 알레르기 표시란인데요.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됩니다. 또한 식품에 사용된 원재료가 아니어도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섞여 들어갈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혼입될 수 있다는 의미의 주의사항 문구가 쓰여 있으니 특정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유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날짜 표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원재료명 아래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인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됩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했을 때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그러니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에 신경 쓰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식품 포장지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식품을 잘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1.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강연을 하게 된 소감을 밝히며 강연을 시작하고 있다.
- ② 강연 내용을 요약하여 마무리하며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강연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여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④ 강연에 사용한 자료의 출처를 언급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⑤ 강연 순서를 처음에 안내하여 청중이 내용을 예측하게 하고 있다.

2. 다음은 위 강연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강연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스제과 <b>복숭아향 캔디</b> 합성복숭아향 첨가  ○○g (○○kcal)	□□식품 <b>소고기 햄버그스테이크</b>  소고기 00% 돼지고기 00% ○○g (○○kcal)	<table border="1"> <tr> <td>식품유형</td> <td>분쇄가공육</td> </tr> <tr> <td rowspan="3">원재료명</td> <td>소고기 00%</td> </tr> <tr> <td>돼지고기 00%</td> </tr> <tr> <td>마늘</td> </tr> <tr> <td></td> <td>...</td> </tr> <tr> <td></td> <td><b>소고기, 돼지고기, 밀 함유</b></td> </tr> <tr> <td>유통기한</td> <td>2022. XX. XX. 까지</td> </tr> <tr> <td>주의사항</td> <td>대두, 우유 혼입 가능 -18℃ 이하 냉동 보관 ...</td> </tr> </table>	식품유형	분쇄가공육	원재료명	소고기 00%	돼지고기 00%	마늘		...		<b>소고기, 돼지고기, 밀 함유</b>	유통기한	2022. XX. XX. 까지	주의사항	대두, 우유 혼입 가능 -18℃ 이하 냉동 보관 ...
식품유형	분쇄가공육															
원재료명	소고기 00%															
	돼지고기 00%															
	마늘															
	...															
	<b>소고기, 돼지고기, 밀 함유</b>															
유통기한	2022. XX. XX. 까지															
주의사항	대두, 우유 혼입 가능 -18℃ 이하 냉동 보관 ...															
[자료 1]	[자료 2]	[자료 3]														

- ① 주표시면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보여 주기 위해 ㉠에 [자료 1]을 활용하였다.
- ② 제품명에 특정 글자가 사용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에 [자료 1]을 활용하였다.
- ③ 식육가공품에서 제품명에 원재료명이 포함된 경우 주표시면에 추가로 표시되는 요소를 보여 주기 위해 ㉡에 [자료 2]를 활용하였다.
- ④ 식품 제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혼입될 수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알레르기 표시란을 통해 표시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에 [자료 3]을 활용하였다.
- ⑤ 식품 포장지에 표기되는 날짜 표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에 [자료 3]을 활용하였다.

3. 다음은 위 강연을 들은 청중의 반응이다. 강연의 내용을 고려하여 청중의 반응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청자 1: 지난번에 어떤 식품을 샀는데 보관 방법 표시가 눈에 잘 띄지 않았어. 식품에 따라 보관 방법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아서 아쉬웠어.
- 청자 2: 그동안 열량만 보고 식품을 구매했었는데, 다른 중요한 정보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유익했어. 동생에게 알려 주기 위해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해 봐야겠어.
- 청자 3: 수업 시간에 식품 표시사항을 점자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배웠어. 오늘 알게 된 내용이 점자로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사례를 조사해 봐야겠어.

- ① 청자 1은 강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정보가 있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② 청자 2는 강연에서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 ③ 청자 3은 강연의 내용을 통해 기존의 지식을 수정하고 있다.
- ④ 청자 1과 청자 2는 모두 강연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다.
- ⑤ 청자 2와 청자 3은 모두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4 ~ 7] (가)는 동아리원들 간의 토의이고, (나)는 토의에 참여한 학생이 작성한 안내문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학생 1: 우리 동아리가 학교 축제 마지막 날 오후에 행사를 진행하게 됐잖아. 그래서 오늘은 그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토의하려고 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해 줘.

학생 2: 지난번에 우리 동아리원끼리 피구 시합했었잖아. 그때 친하지 않았던 동아리 친구들이랑 친해져서 좋았어. 그거랑 비슷하게 이번 축제에서는 학급 대항 축구 대회를 열면 학급 단합도 되고 좋지 않을까?

학생 3: 그래도 그건 학급 간에 경쟁을 유발하기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잖아. 이번에는 많은 친구들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좋을 것 같아. 예전에 우리 동아리에서 운영했던 마라톤 행사는 어때?

학생 2: 나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는데, 마라톤은 체력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워. 나 같은 생각을 하는 학생들은 참여를 꺼리지 않을까? 게다가 기록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니까 그것도 경쟁을 유발할 것 같아.

학생 3: 음……. 그럼, 플로깅 행사는 어때? 얼마 전에 기사에서 봤는데 운동 효과가 있으면서도 많은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

학생 1: 플로깅이 뭐야? 처음 들어 보는 말이라 낯설어.

학생 3: 쉽게 말하자면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야. 정해진 코스를 달리면서 쓰레기도 줍다 보니 운동 효과가 크다고 하더라고.

학생 2: 그거 좋겠다. 플로깅 행사를 통해 마을 쓰레기가 줄어들면 우리 지역 사회에도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운동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학생 1: 그럼 다들 플로깅 행사를 진행하는 데 동의하니까 이제 코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학생 3: 학교 근처에 ○○천 둘레길이 있으니까 거기를 코스로 하면 좋겠어.

학생 2: 그런데 참여 인원이 많아지면 코스가 하나로는 부족해. 많은 인원이 달리다 보면 안전 관리가 어려울 거야.

학생 1: 네 말이 맞겠다. 주민들도 불편함을 겪을 거야.

학생 3: 그럼 학교 근처에서 지저분해지기 쉬운 장소를 중심으로 코스를 짜 보자.

학생 2: 좋은 생각이야. 친구들이 자기 체력에 맞게 코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코스를 짜서 홍보하면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할 것 같아.

학생 1: 네 말은 친구들이 각자 체력에 맞게 코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코스를 짜면 학생들의 참여도가 더 높아질 거라는 거지? 내가 우선 코스를 짜 볼게.

학생 2: 응, 고마워. 참가 신청은 학생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서 받아. 신청 기간은 일주일이면 넉넉하겠지?

학생 1: 좋아. 그럼 내가 오늘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문을 써서 공유할게.

(나)

플로깅 행사 개최 안내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운동 동아리 '건강 더하기'에서 여러분을 위해 축제 마지막 날에 우리 학교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플로깅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플로깅'은 이삭줍기를 의미하는 스웨덴어 '플로카 업(plocka upp)'과 영어 '조깅(jogging)'이 합쳐진 말로 환경을 지키자는 움직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으로 건강과 환경을 모두 지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플로깅 행사는 자신의 체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난이도에 따라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세 가지 코스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면 건강을 지키면서 지역 사회의 환경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

○ 일시: 2022년 12월 ××일(금) 15:00 ~ 17:00

○ 대상: 우리 학교 학생 누구나

○ 코스

코스명	코스	거리	난이도
1코스	학교 운동장-○○천-영화관(반환 지점)	약 2km	하
2코스	학교 운동장-슈퍼마켓-공원(반환 지점)	약 3km	중
3코스	학교 운동장-도서관-전망대(반환 지점)	약 3.5km	상

○ 신청 기간: 2022년 11월 ××일 ~ 11월 ××일 / 7일간

○ 신청 방법: 참여 링크 <https://www.□□.com>에서 신청

4. '학생 1'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의의 배경을 언급하며 토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토의 참여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 ③ 토의 참여자의 발언에 동의하며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 ④ 토의 흐름에 따라 다음에 발언할 토의 참여자를 지칭하고 있다.
- ⑤ 토의 참여자의 발언을 재진술하며 상대의 의견을 확인하고 있다.

5.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생 2'는 상대방의 의견을 일부 인정하며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상대방과 공유하는 경험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③ '학생 2'는 자신의 의견을 여러 개 제시한 후 상대방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 ④ '학생 3'은 상대방이 제시한 방안의 장점을 언급하고 있다.
- ⑤ '학생 3'은 자신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보충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6. '학생 1'이 (가)의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를 작성할 때,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에서 용어가 낯설다는 의견에 따라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풀어서 설명해야겠어.
- ② (가)에서 학생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 하자는 의견에 따라 참여 링크를 제시해야겠어.
- ③ (가)에서 체력에 맞게 코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 따 라 행사 코스의 거리와 난이도를 제시해야겠어.
- ④ (가)에서 참여에 제한이 없는 활동이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우 리 학교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을 밝혀야겠어.
- ⑤ (가)에서 이번 행사가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 라 지역 사회 주민과 연계하여 진행됨을 밝혀야겠어.

7. <조건>에 따라 (나)의 ㉠에 추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조 건 〉

- 건강과 환경 측면에서의 기대 효과를 고려하여 작성할 것.
- 비유적 표현을 활용할 것.

- ① 열심히 공부하느라 몸을 돌볼 시간이 없으셨나요? 바쁜 일상 속 에서 플로깅에 참여하여 건강을 지켜 보세요.
- ② 달리며 쓰레기를 줍는 단순한 행동을 통해 지구가 깨끗해질 수 있 어요. 플로깅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 기대합니다.
- ③ 플로깅 행사 참여, 아직도 망설이시나요? 여러분의 건강도 지키고 지역 환경도 살리는 보석 같은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 ④ 기후 위기를 막는 도전, 함께 시작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투자한 하루가 우리같이 깨끗한 지역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 ⑤ 플로깅은 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원하는 코스를 선택 하여 플로깅 행사에 참여하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8 ~ 10] 다음은 작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작문 상황:** 지역 신문의 독자 기고란에 그린워싱과 관련해 주 장하는 글을 쓰려고 함.

○ **초고**

최근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 경 제품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그린워싱이 증 가하고 있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이란 기업이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이나 제품 생산 과정 등을 친환경적인 것으로 오해 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친환경 제품 생산 업체에 피해를 주어 친환경 제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

그린워싱이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기업이 환경 문 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단순히 마케팅의 수단으로 이용하 기 때문이다. 더불어 제도적 측면에서 친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법률적 기준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는 친환경적인 소비에 관심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환경마크를 비롯 한 친환경 제품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친환경 제 품을 제대로 선별하여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린워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은 기업 윤리를 제정립하고 소비자가 환경과 관련된 제품 정보를 오해하지 않 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 해 친환경과 관련된 법률적 기준을 보완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그린워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소비자는 그린워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 기업 성장과 발전은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A]** 다. 그린워싱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사  
 회 구성원 모두가 협력하여 그린워싱을 해결해야 한다.

8. 다음은 초고를 작성하기 전에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다. ㉠~㉣ 중 학생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공정한 경쟁 질서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의 입장을 대조하여 제시해야겠어. .... ㉠
- 문답의 방식을 활용해 그린워싱의 증가 원인을 제시해야겠어. .... ㉡
- 예상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린워싱의 개념을 제시해야겠어. .... ㉢
- 그린워싱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소비자와 생산 업체의 측 면에서 제시해야겠어. .... ㉣
- 그린워싱의 해결 방안을 기업, 정부, 소비자의 측면으로 나누 어 체계적으로 제시해야겠어. .... ㉤

- ① ㉠      ② ㉡      ③ ㉢      ④ ㉣      ⑤ ㉤

9.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자료 1] 통계 자료**

㉔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도 및 구매 경험

연도	관심도	구매 경험
2019년	78.1	60.1
2021년	91.5	87.8

㉕ 환경 관련 법정 인증마크 인지도

인지도	비율
잘 알고 있다	11%
잘 알지는 못한다	67%
모른다	22%

**[자료 2] 신문 기사**

○○기업은 재생 플라스틱으로 제품 용기를 제작했다는 표시로 자체 제작한 스티커를 붙이고 친환경적 특성을 홍보하여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런데 해당 스티커가 환경 관련 법정 인증마크와 유사해 소비자가 해당 스티커를 법정 인증마크로 혼동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많았고, 한 시민 단체가 조사한 결과 제품 용기의 소재도 재생 플라스틱이 아님이 밝혀졌다. 이를 계기로 환경마크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으나, 관련 정보들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자료 3] 전문가 인터뷰**

외국에서는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쓸 때 체크리스트와 같은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적합성 평가 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객관적인 지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법률을 보완해 나간다면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친환경 제품의 인증과 관련된 정보를 여러 기관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면 소비자가 그린워싱에 쉽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① [자료 1-㉔]를 활용하여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한다.
- ② [자료 2]를 활용하여 기업이 환경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마케팅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례로 제시한다.
- ③ [자료 3]을 활용하여 객관적 지표를 마련한 해외 사례를 친환경과 관련된 법률적 기준을 보완하자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다.
- ④ [자료 1-㉔]와 [자료 2]를 활용하여 소비자가 친환경 관련 제품 정보를 잘 알지 못해 제품을 제대로 선별하여 구매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료로 제시한다.
- ⑤ [자료 2]와 [자료 3]을 활용하여 기업이 자체적으로 환경마크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기업 윤리를 재정립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한다.

10. <보기>는 [A]를 쓴 학생이 친구에게 보낸 이메일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네가 준 의견 중 ( ㉠ )해 보라는 말을 고려해 초고의 마지막 문단을 아래와 같이 수정해 봤어. 확인해 줄래?

그린워싱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협력하여 그린워싱을 해결해야 한다. 그린워싱을 해결하면 사회가 지향하는 친환경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기업 성장과 발전의 의미는 삭제하고, 그린워싱 해결의 의미는 추가
- ② 기업 성장과 발전의 의미는 삭제하고, 환경 문제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추가
- ③ 기업 성장과 발전의 의미는 삭제하고, 그린워싱 해결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방안은 추가
- ④ 친환경 기업이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는 삭제하고, 그린워싱 해결의 의미는 추가
- ⑤ 친환경 기업이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는 삭제하고, 그린워싱 해결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방안은 추가

11. <보기>는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쓰다<sup>3</sup> ㉠

- ① [...에 ...을] 어떤 일을 하는 데에 재료나 도구, 수단을 이용하다.  
 『수업을 끝내는 데 전기면도기를 쓴다.』
- ② [...에게 ...을]  
 「1」 다른 사람에게 베풀거나 내다.  
 『그는 취직 기념으로 친구들에게 한턱을 썼다.』  
 「2」 어떤 일에 마음이나 관심을 기울이다.  
 『선생님, 일부러 체계 마음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쓰다<sup>6</sup> ㉡

- ① 혀로 느끼는 맛이 한약이나 스테, 씌바귀의 맛과 같다.  
 『나물이 쓰다.』
- ② [...이] 몸이 좋지 않아서 입맛이 없다.  
 『머칠을 앓았더니 입맛이 써서 맛있는 게 없다.』

- ① '쓰다<sup>3</sup>' ㉡ 「1」의 용례로 '그는 들려오는 소문에 신경을 썼다.'를 추가할 수 있군.
- ② '쓰다<sup>3</sup>' ㉠과 '쓰다<sup>3</sup>' ㉡는 모두 문형 정보와 용례로 보아 목적어와 어울려 써야 함을 알 수 있군.
- ③ '쓰다<sup>3</sup>'과 '쓰다<sup>6</sup>'은 별개의 표제어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동음이의 관계임을 알 수 있군.
- ④ '쓰다<sup>3</sup>'과 '쓰다<sup>6</sup>'은 각각 하나의 표제어 아래 여러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다의어라고 볼 수 있군.
- ⑤ '쓰다<sup>6</sup>'은 '쓰다<sup>3</sup>'과 달리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임을 알 수 있군.

[12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관형어와 부사어는 다른 말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이다.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하고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수식한다. 관형어나 부사어가 실현되는 방법은 주로 다음과 같다.

- (가) 저 바다로 어서 떠나자.
- (나) 찬 공기가 따뜻하게 변했다.
- (다) 민지의 동생이 학교에 갔다.

(가)의 ‘저’와 ‘어서’처럼 관형사와 부사가 그 자체로 각각 관형어와 부사어로 쓰일 수 있다. 또한 (나)의 ‘찬’과 ‘따뜻하게’처럼 용언의 어간에 전성 어미가 결합하거나, (다)의 ‘민지의’와 ‘학교에’처럼 체언에 격 조사가 결합하여 쓰일 수도 있다.

관형어와 부사어는 문장에서 필수적인 성분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생략이 가능하다. 다만, ㉠의존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나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는 생략할 수 없다. 또한 관형어와 부사어는 각각 여러 개를 겹쳐서 사용할 수 있다.

중세 국어의 관형어와 부사어도 현대 국어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나 격 조사가 쓰일 때 차이를 보였다. 관형격 조사의 경우,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유정 체언 중 높임의 대상이 아닌 것과 결합할 때는 ‘의/의’가 쓰였다. 그리고 무정 체언이나 높임의 대상이 되는 유정 체언과 결합할 때는 ‘스’가 쓰였다. 부사격 조사의 경우, 결합하는 체언의 끝음절 모음이 양성 모음이면 ‘애’, 음성 모음이면 ‘에’, ‘ㅣ’나 반모음 ‘ㅣ’이면 ‘에’가 쓰였는데 특정 체언 뒤에서는 ‘의/의’가 쓰이기도 했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 불휘 기픈 남근 바르매 아니 필씩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므로)  
— 「용비어천가」 —
- 眞(원)의 지비 가샤 避仇(피구)홍 소너 마리  
(원의 집에 가서서 피구할 손의 말이)  
— 「용비어천가」 —
- 더 부텃 行(행)과 願(원)과 工巧(공교)호신 方便(방편)은  
(저 부처의 행과 원과 공교하신 방편은)  
— 「석보상절」 —

- ① ‘기픈’을 보니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용언 어간에 전성 어미가 결합한 형태의 관형어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② ‘바르매’를 보니 현대 국어와 달리 끝음절 모음이 양성 모음인 체언과 결합할 때는 부사격 조사 ‘애’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아니’를 보니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부사 자체가 부사어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④ ‘眞(원)의 지비’를 보니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관형어가 여러 개 겹쳐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⑤ ‘부텃’을 보니 현대 국어와 달리 높임의 대상이 되는 유정 체언과 결합할 때는 관형격 조사 ‘스’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13. 밑줄 친 부분이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 ㉠: 작은 것이 아름답다.  
㉡: 내가 회장으로 그 회의를 주재하였다.
- ② [ ㉠: 그 집은 주변 풍경과 잘 어울린다.  
㉡: 이 그림은 가짜인데도 진짜와 똑같다.
- ③ [ ㉠: 친구에게 책을 한 권 선물 받았다.  
㉡: 강아지들이 마당에서 뛰는다.
- ④ [ ㉠: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나라의 보배이다.  
㉡: 이삿짐을 바닥에 가지런히 놓았다.
- ⑤ [ ㉠: 그는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었다.  
㉡: 나는 꽃꽃이를 취미로 삼았다.

14. 다음은 문법 학습지의 일부이다.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구개음화**: 받침의 ‘ㄷ’, ‘ㄷ’이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ㅈ],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

1. ‘끝인사’의 표준 발음이 [끄딘사]인 이유를 알아보자.  
‘끝인사’에서 ‘끝’의 받침 ‘ㅌ’ 뒤에 ‘ㅣ’로 시작하는 ( ㉠ )가 오기 때문에 [끄딘사]로 발음된다.
2. ‘곧이’와 ‘곧이어’의 표준 발음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곧이’의 ‘-이’는 부사를 만들어 주는 접사이다. 따라서 ‘곧이’의 표준 발음은 ( ㉡ )이다. ‘곧이어’의 ‘이어’는 ‘앞의 말이나 행동 따위에 잇대어’라는 뜻을 지닌 부사이다. 따라서 ‘곧이어’의 표준 발음은 ( ㉢ )이다.

- |   | ㉠      | ㉡    | ㉢     |
|---|--------|------|-------|
| ① | 실질 형태소 | [고지] | [고지어] |
| ② | 실질 형태소 | [고디] | [고지어] |
| ③ | 실질 형태소 | [고지] | [고디어] |
| ④ | 형식 형태소 | [고디] | [고지어] |
| ⑤ | 형식 형태소 | [고지] | [고디어] |

15. 다음은 문법 수업의 내용을 정리한 학생의 노트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피동의 개념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어떤 동작을 당하거나 영향을 받는 것

2. 피동 표현의 실현

- ‘-이-, -히-, -리-, -기-’와 같은 피동 접사에 의해 단형 피동으로 실현되거나 ‘-아/-어지다’ 등에 의해 장형 피동으로 실현됨.
- 피동 접사와 ‘-아/-어지다’를 같이 쓰는 이중 피동 표현은 잘못된 표현임.

<보기>

- 그녀의 손등이 고양이에게 ㉠ 긁혔다.
- 형이 동생에게 아끼던 인형을 ㉡ 빼앗겼다.
- 비가 내려서 운동장에 천막이 ㉢ 세워졌다.
- 도화지의 질이 좋아서 그림이 잘 ㉣ 그려졌다.
- 커다란 빵이 순식간에 여러 조각으로 ㉤ 나뉘었다.

- ① ㉠은 ‘긁-’에 접사 ‘-히-’가 결합하여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군.
- ② ㉡은 주어인 ‘형’이 ‘동생’에 의해 행위를 당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군.
- ③ ㉢은 ‘세우-’에 ‘-어지다’가 결합하여 장형 피동으로 실현되었군.
- ④ ㉣은 접사 ‘-리-’와 함께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군.
- ⑤ ㉤은 ‘나누-’에 접사 ‘-이-’가 결합하여 줄어든 형태가 나타난 피동 표현이군.

[16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관중은 춘추 시대 제(齊)나라의 재상으로 군주인 환공을 도와 약소국이던 제나라를 부강한 국가로 성장시켰다. 관중이 생각한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과 국가를 통치하는 방법은 『관자』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이 살던 현실의 문제에 실리적으로 ㉠ 대처하고 정치적인 분열을 적극적으로 막아 나라의 부강과 백성의 평안을 이루고자 하였다.

관중은 백성이 국가 경제의 근본이라는 경제적 관점을 바탕으로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군주는 법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을 천부적으로 지닌 사람이다. 하지만 군주가 마음대로 법을 만들면 백성의 삶이 ㉡ 괴멸해질 수 있으므로 군주는 이익을 추구하는 백성의 본성을 고려해 백성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때 관중이 강조한 백성의 윤택한 삶은 도덕적 교화와 같은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부강한 나라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관중은 군주가 자신에 대해서는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패(霸)’라고 ㉢ 규정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군주도 법의 적용에서 예외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군주는 ‘권세’를 지녀야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데, 이때 군주가 패를 실천해야 백성이 권세를 인정하게 된다. ㉣ 결국 군주가 법을 존중하는 것은 백성이 군주를 존중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관중은 권세를 가진 군주는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 통치, 즉 ‘패업(覇業)’을 위한 통치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법을 통한 통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때 군주는 능력 있는 신하를 공정하게 등용하되 신하들이 군주의 권세를 넘보거나 법질서를 혼란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권세를 신하에게 위임하지 말아야 하며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중의 사상은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 법을 통한 통치를 도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율곡은 유학적 사상을 기반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군주상을 제시하였다. 그는 『성학집요』에서 개인의 수양을 통해 앎을 늘리고 인격을 완성하는 것을 군주의 자격으로 보았다. 율곡은 군주가 인격을 완성하고 아는 것을 실천하면 백성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는 도덕적 교화가 가능해진다고 본 것이다. 율곡은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왕도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군주가 신하를 통해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군주가 포악한 정치를 펼쳐 신하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거나 민심을 잃으면 교체될 수 있다고 여겼다.

율곡은 군주의 통치에 따라 태평한 시대인 치세와 혼란스러운 시대인 난세가 구분된다고 보고, 이를 중심으로 군주의 유형과 통치 방법을 나누어 설명했다. 치세를 만드는 군주는 재능과 지식이 출중해 신하를 능력에 맞게 발탁하여 일을 분배할 줄 알거나, 재능과 지식은 ㉠ 부족하지만 현명한 신하를 분별하여 그에게 나라의 일을 맡길 줄 안다. 이들의 통치 방법은 ‘왕도(王道)’와 ‘패도(覇道)’로 나뉜다. 왕도는 군주의 인격 완성을 통해 백성의 도덕적 교화까지 이루어 내는 것이고, 패도는 군주의 인격이 완성되지 않아 백성의 도

덕적 교화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백성의 경제적 안정은 이루어 내는 것이다.

난세를 만드는 군주는 자신의 총명만을 믿고 신하를 불신하거나, 간신의 말을 믿고 의지하여 눈과 귀가 가려진 군주이다. 이들은 백성을 괴롭히고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아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폭군, 간소한 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총명함이 없으며 무능력한 혼군, 나약하여 자신의 뜻을 세우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용군으로 분류된다. 이들의 통치 방법은 포악한 정치를 의미하는 ‘무도(無道)’이므로 율곡의 관점에서 무도를 행하는 군주는 교체되어야 할 존재이다.

율곡은 백성의 도덕적 교화를 이루는 왕도정치를 위해서는 백성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편안한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군주의 존재 근거가 백성이라고 보는 민본관에 의한 것으로, 조세 부담을 줄이는 등 백성의 경제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함을 ㉡ 역설한 것이다. 이처럼 율곡의 사상은 왕도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백성의 현실적 삶에 주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16.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사상가가 주장하는 군주의 통치술의 변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사상가가 주장하는 군주의 통치술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사상가가 주장하는 군주의 통치술이 갖는 한계를 드러내고 새로운 통치술을 제안하고 있다.
- ④ (나)와 달리 (가)는 특정한 사상가가 주장하는 군주의 통치술을 군주의 유형에 따라 범주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⑤ (나)와 달리 (가)는 특정한 사상가가 주장하는 군주의 통치술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제시하고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17.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군주가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 있는 폐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군주가 법을 존중하면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군주가 법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백성을 국가의 근본으로 여기게 되기 때문이다.
- ④ 군주가 자신에게도 법 적용에 예외를 두지 않음으로써 권세를 인정받게 되기 때문이다.
- ⑤ 군주가 백성의 본성을 고려하지 않고 나라의 부강을 우선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18. (나)에서 알 수 있는 ‘율곡’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군주는 앓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앓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 ② 군주는 포악한 정치를 펼쳐 신하들에게 지지를 얻지 못하면 교체될 수 있다.
- ③ 군주는 왕도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존재 근거를 백성으로 보아야 한다.
- ④ 백성의 도덕적 교화가 이루어져야 백성의 삶이 경제적으로 편안해질 수 있다.
- ⑤ 백성의 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은 백성의 경제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19. (가)의 관점에서 [A]를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눈과 귀가 가려진 군주는, 정치적 분열을 막아 백성을 평안하게 하므로 폐업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볼 수 있다.
- ② [A]에서 군주가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법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을 천부적으로 지닌 것이므로 폐업으로 볼 수 있다.
- ③ [A]에서 군주가 자신의 총명을 믿고 신하를 불신하는 것은,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폐업으로 볼 수 있다.
- ④ [A]에서 군주가 자신의 뜻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므로 폐업을 위한 통치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 ⑤ [A]에서 군주가 신하를 능력에 맞게 발탁하여 일을 분배한 것은, 능력에 따라 신하를 공정하게 등용한 것이므로 폐업을 위한 통치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20. <보기>는 동서양 사상가들의 견해이다. <보기>와 (가), (나)를 읽은 학생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 ㉡ 군주는 권력을 얻기 전까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을 얻은 후에는 법을 통해 통치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 군주에 따라 치세와 난세가 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고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을 통해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은 군주만이 갖고 있어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 군주는 타락한 현실에 의해 잃어버린 인간의 선한 본성인 도덕성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때 군주는 도덕성의 회복을 목적으로 백성의 기본적인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간다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① 관중과 ㉡는 모두 법을 통한 통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관중과 ㉢는 모두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오로지 군주에게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관중은 ㉣와 달리 백성의 경제적 안정의 목적이 도덕성 회복이 아니라고 보았군.
- ④ 율곡은 ㉣와 달리 군주의 인격 완성 여부에 따라 치세와 난세가 구분된다고 보았군.
- ⑤ 율곡과 ㉣는 모두 백성의 본성을 선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군.

21.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어떤 정세나 사건에 대하여 알맞은 조치를 취함.
- ② ㉡: 지치고 쇠약해짐.
- ③ ㉢: 바로잡아 고침.
- ④ ㉣: 필요한 양이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충분하지 아니함.
- ⑤ ㉤: 자신의 뜻을 힘주어 말함.

[22 ~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얼음을 등에 지고 가는 듯  
 봄은 멀다  
 먼저 든 햇빛에  
 ㉠ 개나리 보실보실 피어서  
 처음 노란 빛에 정이 들었다.

차츰 지붕이 겨울 짐을 부릴 때도 되고  
 집 사이에 쌓은 울타리를 헐 때도 된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가장 먼 데서부터 시작할 때도 온다.

그래서 봄은 사랑의 계절  
모든 거리(距離)가 풀리면서  
**멀리 간 것이 다 돌아온다.**  
서운하게 갈라진 것까지도 돌아온다.  
모든 처음이 그 근원에서 돌아선다.

나무는 나무로  
꽃은 꽃으로  
**버들강아지는 버들가지로**  
**사람은 사람에게로**  
산은 산으로  
**죽은 것과 산 것이** 서로 돌아서서  
그 근원에서 **상견례(相見禮)**를 이룬다.

꽃은 짧은 가을 해에  
**어디쯤 갔다가**  
노루 꼬리만큼  
길어지는 **봄 해를 따라**

몇 천리나 와서  
오늘의 어느 주변에서  
찬란한 **꽃밭을 이루는가**

다락에서 **묵은 빨래뭉치**도 풀려서  
**봄빛을 따라나와**  
산골짜기에서 겨울 산 뼈를 씻으며  
줄줄 흐르는 시냇가로 간다.

- 김광섭, 「봄」 -

(나)

가까이 다가서기 전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는  
아무것도 피울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겨울 들판을 거닐며  
**매운 바람** 끝자락도 **맛을 만치 맞으면**  
**오히려 더욱 따사로움을 알았다**  
듬성듬성 아직한 **털 녹은 눈발이**  
**땅의 품안으로 녹아들기를 꿈꾸며** 뒤척이고  
눈두렁 밭두렁 사이사이  
초록빛 싱싱한 키 작은 ㉠ **들풀** 또한 **고만고만 모여 앉아**  
**저만치 밀려오는 햇살을 기다리고 있었다**  
신발 아래 질척거리며 달라붙는  
**흙의 무게가 삶의 무게만큼** 힘겨웠지만  
여기서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픔이란 아픔은 모두 편히 쉬고 있음도 알았다  
겨울 들판을 거닐며  
**겨울 들판이나 사람이나**  
**가까이 다가서지도 않으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거라고  
아무것도 키울 수 없을 거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기로 했다**

- 허형만, 「겨울 들판을 거닐며」 -

22. (가),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수미상관의 방식을 활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고 있다.
- ③ (나)는 청유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화자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23.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햇빛’과, ㉡은 ‘햇살’과 대비되어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② ㉠은 ‘처음’과, ㉡은 ‘저만치’와 어울려 근원적 외로움을 상징한다.
- ③ ㉠은 ‘보실보실’과, ㉡은 ‘고만고만’과 어울려 승고한 희생을 드러낸다.
- ④ ㉠은 ‘노란 빛’과, ㉡은 ‘초록빛’과 조응하여 생명성을 환기한다.
- ⑤ ㉠은 ‘피어서’와, ㉡은 ‘모여 앉아’와 조응하여 상실감을 부각한다.

2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시에서 계절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자는 계절적 특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미를 이끌어낸다. 화자는 계절의 변화에 내포된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인식하고, 소멸했던 것이 소생하는 모습에서 희망의 이미지를 발견하기도 한다. 또 계절의 변화로 인한 자연현상을 인간의 삶과 관련지어 인식함으로써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나 태도를 드러내기도 한다.

- ① (가)에서는 ‘멀리 간 것이 다 돌아온다’는 것에서 화자가 봄을 소생의 계절로 인식했음을, (나)에서는 ‘매운 바람’도 ‘맛을 만치 맞으면’ ‘오히려 더욱 따사로움을 알’게 되었다는 것에서 화자가 겨울을 소생의 가능성이 내재된 계절로 인식했음을 엿볼 수 있군.
- ② (가)에서는 ‘가을 해에 어디쯤 갔’던 꽃이 ‘봄 해를 따라’와 ‘꽃밭을 이루’는 것에서, (나)에서는 ‘털 녹은 눈발’이 봄이 되어 ‘땅의 품안으로 녹아들기를 꿈’꾼다는 것에서 순환하는 자연의 질서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엿볼 수 있군.
- ③ (가)에서는 ‘묵은 빨래뭉치’가 ‘봄빛을 따라나’온다는 것에서, (나)에서는 ‘흙의 무게’가 ‘삶의 무게’처럼 느껴진다는 것에서 화자가 계절의 변화에서 발견한 희망의 이미지를 엿볼 수 있군.
- ④ (가)에서는 ‘버들강아지는 버들가지로’와 ‘사람은 사람에게로’를 연결한 것에서, (나)에서는 ‘겨울 들판’과 ‘사람’을 연결한 것에서 자연현상을 인간의 삶과 관련짓고 있는 화자의 인식을 엿볼 수 있군.
- ⑤ (가)에서는 ‘죽은 것과 산 것이’ ‘상견례를 이룬다’는 것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화합의 가치를, (나)에서는 ‘가까이 다가서지도 않으면서’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는 것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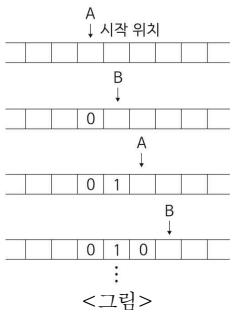
**[25 ~ 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학자 힐베르트는 어떤 1차 논리의 논리식이 주어졌을 경우 이 논리식이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이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튜링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과정에서 가상의 기계 장치인 '튜링 기계'를 ㉠ 고안하게 된다.

튜링 기계는 사람이 계산할 때 일어나는 사고 과정을 응용한 가상의 기계로 ㉡ 테이프, ㉢ 헤드, ㉣ 상태 기록기 등의 부품으로 ㉤ 구성된다. 테이프는 좌우 양방향으로 무한히 많은 칸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며, 각 칸은 비어 있거나 한 개의 기호가 기록되어 있다. 헤드는 테이프에 기록된 기호를 읽거나 기호를 기록하는 장치인데, 테이프 위를 좌우로 한 칸씩 움직일 수 있다. 상태 기록기는 튜링 기계의 상태를 나타낸다.

튜링 기계는 작동규칙이 주어지면 튜링 기계의 상태와 헤드로 판독한 기호에 따라 작동되는데, 작동규칙은 예를 들면 (A, 1, P0, R, B)와 같이 표시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형식을 '5순서열'이라고 한다. 5순서열의 첫 번째 자리와 다섯 번째 자리에는 A, B, C 등의 임의의 기호가 사용되어 튜링 기계의 상태를 나타낸다. (A, 1, P0, R, B)에서 'A'는 튜링 기계의 현재 상태를, 'B'는 튜링 기계의 다음 상태를 나타낸다. 이렇게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와 다음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가 다르다면 기계는 다음 상태로 바뀌고, 이와 달리 두 기호가 같으면 현재 상태가 유지된다. 5순서열의 두 번째 자리와 세 번째 자리에는 0, 1, □ 등의 기호가 사용되는데, □는 빈칸을 의미한다. (A, 1, P0, R, B)에서 '1'은 헤드가 읽는 기호를 나타내며, 'P0'은 기호를 읽은 칸에 0을 기록하라는 것을 나타낸다. 만약 P□가 사용되면 이는 □를 기록하라는 뜻으로 테이프에 기록된 기호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우게 된다. 튜링 기계는 헤드가 읽는 기호와 테이프에 기록된 기호가 서로 같으면 주어진 5순서열을 수행하게 되지만, 다르면 주어진 5순서열을 수행하지 않게 된다. 5순서열의 네 번째 자리에는 헤드의 위치 변경을 지시하는 기호로 L, R, N이 사용되는데, L은 헤드를 왼쪽으로 한 칸, R은 헤드를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는 것을 나타내며, N은 헤드의 위치를 이동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튜링 기계를 결정하는 5순서열은 여러 개가 모여 5순서열의 모임을 이룰 수도 있는데 이때는 세미콜론(;)을 사용해 나타낼 수 있다. 튜링 기계는 테이프의 시작 모습, 기계의 시작 상태, 그리고 테이프에서 헤드의 시작 위치가 정해지면 주어진 5순서열의 모임 중 수행 가능한 5순서열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작동하게 된다. 그러나 수행 가능한 5순서열이 없을 경우에는 작동을 멈추게 된다. <그림>은 테이프의 시작 모습이 모두 빈칸



이고, 기계의 시작 상태는 A이며, 헤드의 시작 위치는 화살표의 위치일 때, 5순서열의 모임 (A, □, P0, R, B); (B, □, P1, R, A)가 하나의 테이프에서 작동하는 상황을 단계별로 도식화한 것이다. 먼저 튜링 기계의 현재 상태가 A이고 테이프가 빈칸이므로, (A, □, P0, R, B)에 따라 그 칸에 0을 기록하고 오른쪽으로 헤드를 한 칸 이동한 후 상태를 B로 변경한다. 다음으로 튜링 기계의 현재 상태가 B이고 테이프가 빈칸이므로, (B, □, P1, R, A)에 따라 그 칸에 1을 기록하고 오른

쪽으로 헤드를 한 칸 이동한 후 상태를 A로 변경한다. 그러면 다시 (A, □, P0, R, B)에 따라 작동하게 되어 결국 튜링 기계는 테이프에 0과 1을 무한히 반복하며 기록하게 된다.

튜링은 위와 같이 무한히 반복되는 5순서열의 모임뿐만 아니라 사칙연산과 같은 유한한 계산을 수행하는 5순서열의 모임을 제시하며 5순서열을 어떻게 ㉥ 조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튜링 기계의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나아가 테이프 한 칸에 튜링 기계의 알고리즘 하나하나가 들어가는 '보편 튜링 기계'라는 것을 제시하며, 아무리 복잡한 알고리즘도 간단한 단위로 ㉦ 분해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대의 컴퓨터 역시, 용량이 크고 속도가 빠를 뿐 결국 복잡한 알고리즘을 아주 간단한 단위로 분해해서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튜링 기계는 현대 컴퓨터 발명의 기본적인 착상을 제공하는 데 크게 ㉧ 공헌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5. 밑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튜링 기계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 ② 튜링 기계의 작동규칙을 표시하는 형식은 무엇인가?
- ③ 보편 튜링 기계와 현대 컴퓨터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④ 튜링 기계가 작동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은 무엇인가?
- ⑤ 보편 튜링 기계가 처리하지 못하는 알고리즘의 종류는 무엇인가?

**26. ㉠ ~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길이를 무한으로 가정한 것은 튜링 기계가 가상의 장치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이 한 번에 판독할 수 있는 기호의 개수는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겠군.
- ③ ㉠의 시작 모습은 ㉢의 위치 변경을 지시하는 기호에 따라 결정되겠군.
- ④ ㉢의 시작 위치가 정해지는 것은 ㉡이 나타내는 튜링 기계의 상태와 관련이 있겠군.
- ⑤ ㉡에 임의의 기호가 사용된다는 것은 ㉠에 기록된 기호의 종류가 항상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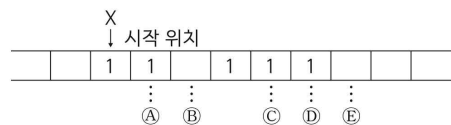
**\* 밑글과 다음을 참고하여 27번과 28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

**[1진법의 덧셈을 하는 튜링 기계의 알고리즘]**

㉦ (X, 1, P1, R, X); ㉧ (X, □, P1, R, Y); ㉨ (Y, 1, P1, R, Y);  
 ㉩ (Y, □, P□, L, Z); ㉪ (Z, 1, P□, N, Z)

**[1진법의 덧셈을 하는 튜링 기계의 시작 모습]**

아래는 1진법의 덧셈을 하는 튜링 기계의 시작 모습을 도식화한 것이다. 튜링 기계의 시작 상태는 X이며, 헤드의 시작 위치는 화살표의 위치이다. 테이프에는 1진법에서 2를 의미하는 '11'과 3을 의미하는 '111'이 기록되어 있으며, '11'과 '111'을 구분하기 위해 사이에 빈칸이 하나 삽입되어 있다.



27. 윗글을 바탕으로 ㉠ ~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튜링 기계의 현재 상태와 다음 상태가 다르게 지정되어 있다.
  - ② ㉡는 튜링 기계의 헤드가 읽는 기호와 기록할 기호가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다.
  - ③ ㉢와 ㉣는 튜링 기계의 헤드가 읽는 기호가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다.
  - ④ ㉠와 ㉢는 튜링 기계의 헤드가 기록할 기호가 다르게 지정되어 있다.
  - ⑤ ㉡와 ㉣는 튜링 기계의 헤드가 이동할 방향이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다.

28. 윗글과 [1진법의 덧셈을 하는 튜링 기계의 시작 모습]을 바탕으로 ㉠ ~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에서 튜링 기계의 상태가 X일 때, ㉡에 따라 헤드는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고 기계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겠군.
  - ② ㉢에서 튜링 기계의 상태가 X일 때, ㉣에 따라 헤드는 빈칸에 1을 기록하고 기계는 상태를 바꾸게 되겠군.
  - ③ ㉢에서 튜링 기계의 상태가 Y일 때, ㉣에 따라 헤드는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고 기계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겠군.
  - ④ ㉤에서 튜링 기계의 상태가 Z일 때, ㉥에 따라 헤드는 테이프에 기록된 1을 지우고 기계는 상태를 바꾸게 되겠군.
  - ⑤ ㉥에서 튜링 기계의 상태가 Y일 때, ㉥에 따라 헤드는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고 기계는 상태를 바꾸게 되겠군.

29. 문맥상 ㉠ ~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생각해 내게
  - ② ㉡: 이루어진다
  - ③ ㉢: 짜느냐에
  - ④ ㉣: 퍼뜨려서
  - ⑤ ㉤: 이바지한

[30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멀리서 안타깝게 손만 흔들던 그 연락선이 드디어 몽기미에 닿았다. 몽기미 생기고 처음이었다. ㉠연락선에 올라간 아이들은 모두 이층으로 우르르 올라가 난간을 붙잡고 먼 데 바다를 건너다보고 있었다. 멀리 까맣게만 보이던 섬들이 차츰 가까워지며 동네가 나타나고, 더 멀리 회색으로만 보이던 섬들도 차츰 가까워지며 포구 모습이 드러났다.

“와, 기와집이다.”

연락선을 대는 포구에 말로만 듣던 까만 기와집도 있었고, 크고 작은 배들이 스무 남은 척이나 몰려 있었다.

목포에 닿자 아이들은 명칭하게 입만 벌렸다. 크고 작은 배들이 수백 척 부두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크고 작은 건물들이 빼곡히 차 있었으며, 큰길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북적거리고 자동차가 빵빵 경적을 울리며 내달았다. 색색으로 예쁘게 꾸며놓은 간판 아래 수많은 상점과, 거기 빼곡히 쌓여 있는 갖가지 상품들이며, 모두가 꿈에도 보지 못했던 광경이었다. 몽기미 아이들은 밤에 꾸는 꿈도 기껏 연락선을 탄다거나 벼랑에서 바다로 곤두박이는 따위였지, 이런 엄청난 세상은 꿈속에도 나타난 적이 없었다.

[A]

“아, 저 비단 좀 봐.”

순자의 손을 잡고 가던 두 학년 아래 남분이기 걸음을 멈추며 손가락질을 했다. 길가 포목전에서 주인이 손님 앞에도 비단을 활짝 펼친 것이다. 가게 벽에는 그런 비단이 천장이 닿게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남분이는 그 비단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도시의 모든 것이 꿈만 같았고, 더구나 서울의 며칠 동안은 무슨 동화 속의 세상을 헤매는 것만 같았다. 돌아오는 ㉡ 기차에서 남분이는 어찌서 우리는 이런 세상을 놔두고 그 작은 섬에서 살아야 하는지 내내 그 생각뿐이었다.

순자는 바로 그 서울에 다시 와서 지금까지 오 년을 살았다. 그 오 년이라는 세월은 그 동화 같던 서울에 대한 소녀의 꿈이 뼈마디가 저미는 고통으로 조각조각 조각이 나는 기간이었고, 그 조각난 꿈을 던고 살벌한 현실에 뼈마디를 부딪치며 자신을 추슬러온 기간이었다. 어려서 왔을 때는 따뜻하게만 웃어주는 것 같던 그 서울이 제 발로 들어오자 너무도 싸늘하고 매정스럽게 돌아앉아 있었다.

그때마다 순자는 자기 집에서 기르던 돼지 새끼 무너리가 떠올랐다. 다른 새끼들은 어미 젖꼭지를 두 개 세 개씩 차지하고 걸퍼지게 빨아대지만, 그 무너리는 힘센 녀석들이 거세게 내두르는 주둥이에 꺾꺾 베들기만 할 뿐 젖은 한 모금도 빨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런 새끼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널퍼덕 퍼질러 누워 젖꼭지만 내맡기고 있는 어미가 얼마나 미웠던지 모른다. 저러니까 잡아먹는 짐승이겠지 싶었다. 서울에 온 자기는 바로 그 무너리가 되어 있었고, 그 어미 돼지처럼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다.

순자는 그 무너리처럼 이 공장 저 공장 떠돌다가 지금 다니는 장난감 공장에 자리를 잡았고, 이제는 숙련공으로 월급도 사만 원이나 받고 있다. 그사이 그럭저럭 오 년이 흘러갔다. 그동안 순자는 하루도 고향을 떠올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 모두가 가난하게는 살지만 깔보는 사람도 없고 쳐다볼 사람도 없으며, 무엇에 쫓기는 절박감도 없었다. 무엇보다 몽기미의 그 포근한 인정이 그리웠다.

[중략 줄거리] 순자는 상경한 이후 처음으로 고향으로 가는 중에, 기차 안에서 우연히 남분이를 만나 몽기미 소식을 듣는다.

섬을 산다는 것은 근처 무인도의 일 년간 해초 채취권을 사는 것을 말한다. 그 해에 갯것이 잘 자라면 상당히 재미를 보는 수도 있지만, 흉작일 때는 본전도 못 건지기 일쑤였다. 들보기 장사 애 말라 죽는다고, 그런 투기를 한 사람들은 이른 봄부터 미역은 포자가 제대로 불나 톳은 제대로 자라나, 부등가리 안 옆 조이듯 가슴을 조이며 날이면 날마다 그 섬을 들락거렸다. 순자는 몽기미 집집마다 굴쩍처럼 너털너털 달라붙은 그 가난이 새삼스레 가슴을 후볐다.

“나는 작년에 우리 집에 삼십만 원 송금했어. 그러고도 또 그 만치 저축은 저축대로 따로 했거든. ㉢ 언니, 우리 동네 한 집 일 년 수입이 통틀어 얼마 줄 알아? 어촌계에서 갯것을 똑같이 나누니까 뻔한데, 미역·톳·우뭇가사리·돌김, 이런 것들을 상회에 넘긴 값을 촘촘히 계산해 보니까, 일 년 수입이 꼭 십이만 원이야. 내 한 달 벌어도 못 되더라고. 깔깔.”

남분이는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며 큰소리로 깔깔거렸다. 시골뜨기 계집아이가 한 달 수입이 십이만 원이 넘는다면 이것은 자랑할 정도가 아니었다.

“지금 뭘 하고 있는데 별이가 그렇게 좋아?”  
 ㉠ “히히. 언니 실망하지 않을까?”  
 남분이는 야살스럽게\* 히들거렸다.  
 “실망하긴?”  
 “운전하고 있어. 히히.”  
 “운전? 아니, 계집애가 어떻게 운전을 다 배웠어?”  
 “히히. 기술이 별로 필요 없는 운전이야?”  
 “기술이 필요 없는 운전?”  
 “주전자 운전 있잖아?”  
 “주전자 운전이라니?”  
 순자는 눈을 더 크게 뜨고 도무지 어리둥절하기만 한 표정이었다.  
 “어이구, 각 막혔구면. 서울 헛살았어. 깔깔.”  
 ㉡ “아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손에다 쥐어 모셔야 알겠구면. 술 주전자 운전이란 말이야. 술 주전자! 깔깔.”  
 ㉢ “그러니까.....”  
 순자는 그제야 옷물이 도는 듯\* 눈을 거슴츠레하게 떴다.  
 “어때? 서울서야 돈만 벌면 그만이지. 지금 서울에 주전자 운전사가 몇 만 명인 줄 알아? ㉢ 그것도 당연한 직업이야. 그사이에 **식순이 공순이** 다 해봤지만, 그건 남의 **종살이**밖에 안되더라고. 몸뚱이 도사리고 더러운 새끼들한테 구박받으며 불박여 하루 종일 뺨뺨야 하루 별이가 그게 얼마야? 서울서 사람값은 하나도 돈이고 둘도 돈이야. 국장이 과장보다 월급이 많고 서기가 급사보다 월급이 많은 건, 그만치 층하 가려 사람대접을 달리 하는 게 아니고 뭐야?”  
 남분이는 조금도 스스럼이 없었다. 그러니까 십만 원 넘게 번다는 자기가 과장이라면 공순이들은 급사 턱이나 된다는 본새였다.  
 - 송기숙, 「몽기미 풍경」 -  
 \*야살스럽게: 얄밟고 되바라지게.  
 \*옷물이 도는 듯: 알 것 같은 실마리가 잡히는 듯.

30.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력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인물의 행위를 제시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요약적 서술을 통해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추측하는 표현을 통해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감각적인 묘사를 사용하여 관찰 대상을 실감 나게 드러내고 있다.

31.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인물이 기대했던 바를 실제로 확인하게 하는 소재이고, ㉢는 인물의 욕망이 충족되는 공간이다.
  - ② ㉠는 인물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소재이고, ㉢는 인물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공간이다.
  - ③ ㉠는 인물이 타인과의 단절을 유발하는 소재이고, ㉢는 인물이 타인과 소통하는 원인이 되는 공간이다.
  - ④ ㉠는 인물이 거부해 오던 운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소재이고, ㉢는 인물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공간이다.
  - ⑤ ㉠는 인물이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체험하게 하는 소재이고, ㉢는 인물이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는 공간이다.

32.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고향의 상황과 비교하여 자신의 상황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남분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 ② ㉡: 순자의 마음이 상할 것을 걱정하여 조심스러워하는 남분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 남분이가 하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해 하는 순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④ ㉠: 남분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어렵듯이 짐작하고 있는 순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⑤ ㉢: 자신의 직업에 대해 부끄럼 없이 떳떳하게 여기는 남분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급속한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던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어촌 마을에서 도시로 상경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모습과 고된 노동의 현실을 통해 당시의 세태를 사실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촌 마을은 경제적 발전에서 낙후된 공간이자, 도시의 삶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그리움의 공간으로 나타나 있다.

- ① ‘뺨마디가 저미는 고통’을 느끼며 ‘살벌한 현실’을 살고 있는 순자의 모습에서, 고된 삶을 살고 있는 노동자의 현실을 짐작할 수 있군.
- ②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 없이 생활하는 자신을 ‘무녀리’와 동일시하는 순자의 모습에서, 도시 생활에서 느끼는 소외감을 짐작할 수 있군.
- ③ ‘본전도 못 건지’며 ‘가슴을 조이’는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그 섬을 들락거렸다’는 것에서, 도시로 상경한 인물들에게 어촌 마을은 그리움의 공간임을 짐작할 수 있군.
- ④ ‘몽기미 집집마다’ ‘달라붙은 그 가난’이 ‘가슴을 후뺐다’는 것에서, 경제적 발전에서 낙후된 어촌 마을의 현실을 짐작할 수 있군.
- ⑤ ‘식순이 공순이’는 ‘종살이’ 취급밖에 받지 못한다며 돈을 쉽게 버는 일을 선택한 남분의 모습에서, 물질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세태를 짐작할 수 있군.

[34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몸이 늦게 나서 세상에 할 일 없어  
강호의 입자 되야 풍월로 늙어가니  
물의청복(物外淸福)이 없어야 하라마는  
돌이켜 생각하니 애달픈 일 하고 많다  
만물의 귀한 것이 사람이 으뜸인데  
그중의 남자 되야 이목총명(耳目聰明) 갖추 삼겨  
평생의 먹은 뜻이 일신부귀 아니러니  
세월이 훌쩍 가고 지업(志業)에 때를 놓쳐  
백수공명(白首功名)을 겨우 굴어 이뤄내니  
종적이 저어하고 세로(世路)도 기구하야  
수년(數年) 낮은 벼슬로 남 따라 다니다가  
삼춘취(三春暉) 쉬이 가니 촌초심\*이 그지없어  
동장(銅章)을 빌어 차고 오마(五馬)를 바삐 몰아  
남주(南州) 백리지(百里地)에 여민휴식(與民休息)\* 하랴터니  
이마 흰 모진 범이 어디서 나타났는고  
가뜩이나 엷은 환정(宦情)\* 하루아침에 재 되거다  
젖은 옷 벗어놓고 황관(黃冠)\*으로 갈아 쓰고  
채 하나 떨쳐 쥐고 호연히 돌아오니  
산천이 의구하고 송죽이 반기는 듯  
시비(柴扉)를 찾아들어 삼경(三徑)을 다스리니  
**금서일실(琴書一室)\*이 이 아니 내 본인가**  
**앞내에 고기 낚고 뒷뒀에 약을 캐야**  
수업(手業)을 일로 삼아 여년(餘年)을 보내노니  
**인생지락(人生至樂)이 이밖에 또 없도다**

(중략)

박잔에 술을 부어 알맞게 먹은 후에  
수조가(水調歌)를 길이 읊고 혼자 서서 흔들대니  
호탕한 미친 흥을 행여 아니 남이 알겠는가  
하마 저물었느냐 먼 뒀에 달 오른다  
그만하야 쉬어보자 바위에 배 매어라  
패랭이 빗기쓰고 오죽장(烏竹杖) 홀어 짚어  
모래 독을 돌아들어 석경(石筍)으로 올라가니  
**오류택(五柳宅)\*** 소쇄한데 경물이 새로워라  
술 그늘에 훑걸으며 원근을 바라보니  
수월(水月)이 영롱하야 건곤이 제각기인 듯  
희희호호(熙熙皞皞)하야 신세를 다 잊겠구나  
이 중에 맺힌 마음 북관(北關)에 달렸으니  
사안(謝安)의 사죽도사(絲竹陶瀉)\* 옛일이 오늘일세  
**내 근심 무익(無益)한 줄 모르지** 아니하되  
**천성(天性)을 못 변하니** 진실로 **가소롭다**  
두어라 **강호(江湖)의 일민(逸民)\*이** 되야 **축성수(祝聖壽)\*나**  
**하리라**

- 윤이후, 「일민가(逸民歌)」 -

- \* 촌초심: 부모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려는 마음.
- \* 여민휴식: 백성과 함께 지내는 마음으로 다스림.
- \* 환정: 벼슬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
- \* 황관: 풀로 만든 관으로 평민이 씀.
- \* 금서일실: 거문고와 책이 있는 방.
- \* 오류택: 진나라 시인 도연명의 집으로 은거하는 집을 일컫음.
- \* 사안의 사죽도사: 진나라 사람 사안이 음악으로 시름을 달래며 지냈다고 함.
- \* 일민: 학식과 덕행이 있으면서도 세상에 나서지 않고 묻혀 지내는 사람.
- \* 축성수: 임금의 장수를 빙.

(나)

붉은 **톨립**의 열(列) 옆으로 나무장미의 만발한 이랑이 늘어 서고 달리아가 장성하며 한편에는 우방의 활엽(闊葉)이 온통 빈틈없는 푸른 보료\*를 편다. ㉠ **가구(街區)**에서는 **좁체 얻어 볼 수 없는 귀한 경물이니 아침저녁으로 손쉽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나는 자신을 행복스럽게 여긴다.** 그 한 조각의 밭을 다 스러 아름다운 **꽃**을 보이는 사람은 놀라운 재인(才人)도 장정도 아니라 별사람 아닌 한 사람의 욕심을 넘은 노인인 것이다. 봄에 씨를 뿌려 꽃을 피우고 가을에 뒷거둠을 마치고 다시 갈 아엿을 때까지 그 밭을 만지는 사람은 참으로 그 욕심 웅 단 한 사람인 것이다. 씨를 뿌리기 시작한 날부터는 하루도 번기는 날이 없이 **아침만 되면** 욕심 웅은 보에 쟁기를 싸가지고 어디 선지 나타난다. 살수(撒水) 중경시비(中耕施肥) 제초 배토 — 그때그때를 따라 일파에는 조금의 소홀도 없으며, 일정한 필요의 과정이 오십 평의 구석구석까지 알뜰히 미쳐 이윽고 제때에 아름다운 성과를 맺게 한다. ㉡ **웅은 허리가 휘고 기력이 부실하나 서두르는 법 없이 지치는 법 없이 말하는 법 없이 날이 맞도록 묵묵히 일하며 그의 장기(匠器)가 미치는 뒷자취는 나 날이 면목이 새롭고 아름다워진다.** 침착하게 움직이는 그의 양을 바라볼 때 거기에는 고로(苦勞)의 의식의 표정은 조금도 눈에 띄지 않으며 도리어 한 이랑 한 이랑의 흙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거동에는 만신(滿身)의 회열이 드러나 보인다. ㉢ **때때로 얼굴이 마주칠 때의 아이같이 방긋 웃어 보이는 동심의 표정을 읽으면 그는 괴롭게 노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오십 평 속에서 천진하게 장난하고 예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번역된다.** 참으로 오십 평 속에서의 그의 생활은 삶은 노역이 아니라 즐거운 예술이라고 보여진다. **근로와 예술을 동시에 가진 생활** — 생활의 미화, 노동의 예술화 — 진부한 어투인지는 모르나 **노동의 참된 경지**를 그 구체적 실례를 나는 그 욕심 웅에게 보는 것이다.

생산만이 아니라 미를 곁했으며 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의 열매가 아울러 온다. 반드시 **꽃밭**을 가꾸게 됨으로써의 미를 일컬음이 아니라 만족스런 노동의 표정의 미를 말함이다.

(중략)

한편 그의 착실한 자태를 바라볼 때 나는 그 허리 굽은 **욕심 웅**의 여전한 **생활의식에 비겨** 자신의 그것이 때때로 월등 저하되고 **소침(消沈)됨을 깨닫고 부끄러운** 생각을 마지 못한다. 주기적으로 **생활의욕이 급거히 저락되고** 침체된 일종의 플래토\*의 지대에 다다르게 될 때 주위가 어둡고 진퇴가 귀찮고 우울, 저미(低迷)되어 결과는 생활력조차 감퇴하여 버린다. 욕심이 없고 희망이 없는 탓이라면 욕심 웅의 앞에 너무도 보람 없고 비굴하여 얼굴이 붉어질 지경이나, ㉣ **솔직하게 말하여 그 대체 희망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 어느 정도 어느 거리의 것인가를 생각할 때 역시 답답해지는 것이 당연하며 뜻 없는 명랑은 도리어 천치의 소위로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같은 세대의 젊은 이들에게 그대는 생활의 신조를 어떻게 세웠느냐고 묻고 싶은 때조차 있다. 빈틈없는 이론으로 든든히 무장을 해본다 하더라도 행동이 없는 이상 갑을혹백을 어떻게 가리단 말인가. 참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웃어 보라고 다시 청해 보고 싶다. 우울을 말할 때가 아닐지는 모르나 때때의 생활의식의 저조에는 너무도 절실함이 있다.

㉤ **할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 좀

체 구하기 어려운 저미의 근인(根因)\*이 있기는 있는 것이나 그러나 그렇다고 허구한 날 상을 찌푸리고만 지낼 수도 없는 노릇이니 가까운 손잡이를 잡고 억지로라도 플랫폼을 정복하고 식물 이하의 무기력에서 식물 이상의 행(行)의 생활로 애써 솟아올라야 할 것이다.

- 이효석, 「화춘의장(花春意匠)」 -

- \*보료: 바닥에 까는 두툼한 요.
- \*가구: 거리의 구역.
- \*플랫폼: 정체가.
- \*근인: 근본이 되는 원인.

34.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구체적 지명을 활용하여 현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연쇄의 방식을 사용하여 상황의 심각성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언어유희를 통해 현실에 대한 태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풍경의 가치를 인식하며 이를 수시로 감상할 수 있는 데 따른 글쓴이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 ② ㉡: 대상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어 가는 데 대한 글쓴이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③ ㉢: 주의 깊게 살펴본 대상의 면모를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글쓴이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④ ㉣: 희망의 의미를 구체화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글쓴이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 ⑤ ㉤: 자신이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된 근본적 원인에 대한 글쓴이의 판단이 드러나 있다.

36. (가)와 (나)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오마'는 화자를 과거에 억압하던 대상이고, (나)의 '꽃'은 글쓴이가 관찰한 대상이 자신의 이상을 펼치도록 돕는 소재이다.
- ② (가)의 '웃'은 화자가 자연 풍경에 대한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소재이고, (나)의 '손잡이'는 글쓴이가 이를 사용하는 인물의 능력에 대해 감탄을 자아내는 소재이다.
- ③ (가)의 '송죽'은 화자가 새로운 공간으로 돌아와서 만난 소재이고, (나)의 '툴립'은 글쓴이가 벗어나고자 하는 공간의 특징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 ④ (가)의 '달'은 화자의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소재이고, (나)의 '아침'은 글쓴이가 관찰한 대상의 일관된 행동이 나타나는 시간적 배경이다.
- ⑤ (가)의 '오류택'은 화자가 동경하는 행위가 드러나는 공간이고, (나)의 '꽃밭'은 글쓴이가 경계하는 행위가 드러나는 공간이다.

37.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가)와 (나)는 자기 성찰과 현실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가)의 화자는 속세에서 갈등을 겪고 은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때 화자는 자연을 통해 위안을 얻기도 하지만 번민을 떨치지 못하는 자신을 인식하며 자연에서의 삶에서도 세상을 향한 마음을 드러낸다. (나)의 글쓴이는 자신과 대조적인 삶을 살고 있는 대상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글쓴이는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을 깨닫고 무기력한 삶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 ① (가)의 '앞내에 고기 낚고 뒷피에 약을 캐'며 '인생지락'을 느끼는 것에서 화자가 자연에서의 삶 속에서 위안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나)의 '근로와 예술을 동시에 가진 생활'이 '노동의 참된 경지'라는 것에서 글쓴이가 깨달은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가)의 '금서일실'을 '내 분'으로 여긴다는 것에서 화자가 속세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고민이 드러나 있음을, (나)의 '소침됨을 깨닫고' '생활의욕이 급거히 저락되었다'는 것에서 글쓴이가 해결하고 싶어 하는 고민이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가)의 '내 근심 무익한 줄 모르지' 않지만 '친성을 못 변'해 '가소롭다'는 것에서 화자가 번민을 떨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하고 있음을, (나)의 '육십 옹'의 '생활의식에 비겨' 보며 '부끄러워' 한 것에서 글쓴이가 타인과 대조하며 자신을 성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가)의 '강호의 일민이 되어 축성수나 하리라'에서 화자가 은거하면서도 세상을 향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음을, (나)의 '상을 찌푸리고만 지낼 수' 없으며 '행의 생활'을 다짐하는 것에서 글쓴이가 무기력한 삶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38 ~ 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양면시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서로 구분되는 두 개의 이용자 집단에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용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상대 집단과 거래하면서 경제적 가치나 편익을 창출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이때 플랫폼이란 양쪽 이용자 집단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물리적, 가상적, 제도적 환경을 일컫는다. 이용자 집단은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이나 노력 등과 같은 거래비용을 절감하여 상대 집단과 거래하게 된다.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신용 카드 회사가 제공하는 카드 결제 시스템을 들 수 있다. 플랫폼의 한쪽에는 카드로 결제하는 회원들이 있고, 플랫폼의 반대쪽에는 그것을 지불 수단으로 받는 가맹점들

이 있다. 플랫폼 사업자인 신용 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양쪽 이용자 집단인 카드 회원들과 가맹점들 모두가 고객이 된다.

플랫폼을 통해 연결되는 양쪽 이용자 집단의 관계는 '네트워크 외부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네트워크 외부성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규모가 이용자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과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구분된다.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이란 동일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동일 집단에 속한 이용자의 규모가 커지면 집단 내 개별 이용자의 효용이 증가하는 특성이다. 이와 달리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란 서로 다른 집단 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한쪽 이용자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반대쪽 이용자 집단의 효용이 증가하고, 한쪽 이용자 집단의 규모가 작아지면 반대쪽 이용자 집단의 효용이 감소하게 된다. 양면시장에서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필수적으로 작용하므로 양쪽 이용자 집단이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이용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양쪽 이용자 집단 모두를 플랫폼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격구조**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가격구조란 플랫폼 이용료를 각각의 이용자 집단에 어떻게 부과하느냐를 의미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양쪽 이용자 집단에 차별적인 가격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쪽 이용자 집단의 플랫폼 이용료를 아주 낮게 책정하거나 한쪽 이용자 집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언급된 카드 결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가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카드 회원들이 가맹점에 미치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클수록, 카드 회사는 카드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해 낮은 연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카드 회원 수가 늘어나면 가맹점들의 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맹점은 높은 결제 건당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카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 이는 가맹점이 카드 회원들에게 미치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가격구조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에도 영향을 받는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란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동하느냐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면시장에서 양쪽 이용자 집단 각각은 플랫폼 이용료의 변동에 따라 이용자 수나 서비스 이용량과 같은 수요량에 영향을 받게 된다. 카드 회원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경우에는 연회비가 오를 때 카드 회원 수가 크게 감소하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경우에는 변동이 크지 않다.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양쪽 이용자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여 각 집단에 최적의 이용료를 부과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집단에 낮은 이용료를 부과하여 해당 집단의 이용자 수를 늘리려고 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전략으로 공짜 미끼와 프리미엄(free-mium) 등이 있다. 공짜 미끼 전략은 무료 서비스를 통해 한쪽 집단의 이용자 수를 늘리면서 반대쪽 집단 이용자의 플랫폼 참여를 유인하는 것이다. 프리미엄 전략은 기본적 기능은 무료로 제공하지만 추가적인 기능은 유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한 이용자의 긍정적 경험이 무료 이용자에게 전파되어 그 중 일부가 유료 이용자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이다.

38.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카드 결제 시스템은 카드 회원들과 카드 가맹점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 ② 양면시장에서는 신용 카드 회사와 카드 회원 모두가 가맹점의 고객이 된다.
- ③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 집단이 플랫폼에 참여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 ⑤ 프리미엄 전략은 유료로 전환한 이용자들이 무료 이용자들의 유료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39. **가격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플랫폼 사업자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려하는 것이다.
- ② 양쪽 이용자 집단의 이용료 지불 수단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 ③ 양쪽 이용자 집단에 동일한 이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원칙이다.
- ④ 양쪽 이용자 집단의 규모가 항상 고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 ⑤ 플랫폼 사업자가 규모가 큰 이용자 집단에는 이용료를 부과하지 못한다.

※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40번과 41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

< 보기 >

P사가 개발한 메신저 프로그램은 이용자끼리 무료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 메신저 이용자들이 빠르게 증가했고, 메신저 이용자들끼리 서로 편하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광고 효과를 기대하고 P사와 계약한 ㉡ 광고주들이 크게 늘어났고, P사는 모든 광고주들에게 원래보다 높은 광고 비용을 부과했다. 이후 P사는 더 많은 메신저 이용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메신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이모티콘을 배포하였고, 이를 통해 ㉢ 이모티콘 사용에 익숙해진 이용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점점 많아지자 P사는 메신저를 통해 ㉣ 이모티콘 공급 업체들이 유료 이모티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P사가 높은 판매 수수료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에게 이모티콘을 판매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모여들게 되었다.

4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P사가 메신저 이용자들에게 무료 이모티콘을 배포한 것은 무료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메신저 이용자들을 플랫폼으로 유도하기 위한 공짜 미끼 전략이겠군.
- ② P사가 이모티콘 사용에 익숙해진 메신저 이용자들을 확보한 것은 메신저를 통해 적은 거래비용으로 이용자에게 이모티콘을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목적이겠군.
- ③ P사가 광고주들에게 부과한 광고 비용과 이모티콘 공급 업체에게 부과한 판매 수수료는 P사의 수익 창출을 위한 플랫폼 이용료에 해당하겠군.
- ④ P사가 모든 광고주들에게 원래보다 높은 광고 비용을 부과한 것은 메신저 사용자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광고주들이 얻는 편익이 증가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군.
- ⑤ P사가 개발한 메신저의 이용자 수가 많아져 이용자들끼리 더 편하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메신저 이용자들 사이에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하는 것이겠군.

41. 다음은 윗글과 <보기>를 읽은 학생이 보인 반응이다. A~C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고, ㉠이 ㉡에 미치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클 때, P사가 무료이던 메신저 이용료를 유료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의 수는 ( A ) 하고 ㉡의 효용은 크게 ( B ) 할 것이다. 한편 ㉢이 ㉣에 미치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크다고 가정하면, P사가 ㉢에 부과하는 판매 수수료는 ( C ) 할 것이다.

	A	B	C
①	감소	증가	하락
②	증가	증가	하락
③	감소	증가	상승
④	증가	감소	상승
⑤	감소	감소	하락

[42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계모 장씨는 이성이 왕실의 한 사람이 되어 그 권세가 가볍지 않음을 알고 늘상 헤랑과 신광 법사에게 의존하였다. 그러던 차에 이성과 화양 공주가 화목하지 않음을 알아챈 헤랑이 말하였다.  
 “이러한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부인께서 뜻을 이루실 때입니다.”  
 “무슨 말이냐?”  
 헤랑이 헤헤헤 웃으며 말하였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묘하지 않겠습니까?”  
 장씨가 잠시 동안 생각하더니 말하였다.  
 “이는 정말 중요한 일이니 다른 꾀를 생각해 보아라.”

헤랑이 신광 법사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부인께서 이처럼 약하시니 어떻게 소원을 이루겠습니까?”  
 신광 법사가 말하였다.  
 “이때가 정말 좋으니 부인은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비밀스럽게 계교를 행하였다.  
 한편 보모 정 상궁은 이성이 화양 공주를 박대하자 통탄히 여기고 말하였다.  
 “공주께서는 임금님의 아주 귀한 딸입니다. 더욱이 임금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신 혼인인데 부마께서 이렇게 매몰차시니 어찌 분하지 않겠습니까?”  
 화양이 그 말을 듣고는 볼을 붉히며 말하였다.  
 “이 무슨 말인가? 서방님이 드러나게 나를 박대함이 없고 도리어 나의 불초함을 예로 대한다. 이로 인해 내가 항상 조심하고 있거늘 네가 주인을 원망하며 권세를 운운하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는가?”  
 말의 기운이 엄숙하니 정 상궁이 두려워하며 물러났다. 그때 갑자기 신발 소리가 나며 이성이 ㉠ 발으로 들어왔다. 화양이 물러 내려서며 이성을 맞은 후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성이 화양의 기색을 살펴보니 조금도 방자함이 보이지 않았고, 잘난 척하는 마음이 조금도 얼굴에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화양을 지극히 후대하며 정이 점점 솟아났다. 한밤중 동안 그곳에 있다가 부모가 있는 곳으로 가 문안 인사를 정성껏 올렸다.  
 헤랑은 장씨와 매일 화양을 해칠 계교를 짜는 한편, 신광 법사에게는 이렇게 저렇게 하되 비밀이 탄로나지 않게 하라고 당부하고 보냈다. 헤랑의 가르침을 들은 신광 법사는 개용단\*으로 이성의 모습을 한 채 ㉡ 명월루에 숨었다. 밤이 깊어 인적이 고요해지자, 바로 ㉢ 화양 공주의 방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빼어 즉시 화양을 찌르려고 하였다. 때마침 방 밖에 시비들의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자 마음이 급해진 신광 법사는 엉겁결에 비껴 찌르고 도망갔다. 비명소리를 들은 시비들이 놀라 들어와 시신이 침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목놓아 울며 말하였다.  
 “이 무슨 일이란 말인가?”  
 발을 구르고 ㉣ 의당에 사실을 알리며 우왕좌왕하였다. 이성이 미처 나오지 못한 사이에 이영준이 이성을 급히 불렀다. 이성이 나와 보니 명월루에 울음소리가 진동하였다. 시비들은 급히 뜻하지 않은 재앙이 화양의 몸에 미쳤다고 전하였다. 이성은 크게 놀라면서도 얼굴빛을 태연히 하였다. 이성이 화양을 찌렀다는 소식을 들은 이영준은 보자마자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다. 이성이 정당에 있었다고 답하자, 이영준은 장씨를 의심하면서도 여러 시녀들이 이성이 찌렀다고 하는 말을 듣고는 정신없이 이성과 함께 명월루로 갔다. 시비들이 울부짖으며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이영준과 이성을 보고 놀랐다. 이영준이 휘장 밖에 서서는 이성에게 들어가 보라고 하였다. 화양은 침상 아래 거꾸러진 채로 유희이 낭자하니 그 모습이 매우 잔혹하였다. 왕실의 금지옥엽으로 이런 일을 당하였고, 그 누명이 이성에게 미칠 수 있으니 어찌 멸문지화를 면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얼굴빛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천천히 나아가 공주를 살폈다. 두 눈이 감긴 채 두 뺨에는 혈기가 없고 손과 발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살방도가 전혀 없어 보였으나 비단 저고리를 걷고 자세히 보니 눈같이 흰 피부에 붉은 피가 가득하되 약간의 생기가 있었다. 주머니에서 침을 내어 기를 통하게 할 곳을 짚어 찌렀다. 이성의 침법이 원래 신이하였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 얼굴에 붉은빛

이 통하고 생각이 돌았다. 약을 주자 잠시 후 화양이 숨을 쉬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며 깨어났다.

**[종락 줄거리]** 누명을 쓰고 유배되었던 이성은 외적이 쳐들어오자 풀려나 전장에서 활약하고, 반역의 무리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누명을 벗는다.

그때 사신이 이르렀다는 전갈이 오자 이영준이 이상하게 여겨 즉시 당에서 내려가 임금의 교지를 받았다. 보니 장씨의 허물이 적지 않게 들어 있었다. 궁궐에서 자기 집의 허물이 드러나 모든 관리에게 파다하게 알려진 사실이 부끄러운 한편 장씨의 심술에 통분하였다. 이에 노비를 호령하여 장씨를 모시던 시녀와 유모 혜랑을 잡아들이게 한 후 실상을 파헤쳤다. 혜랑이 비록 크게 간악하지만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속일 수 있겠는가? 처음에 자객을 보내어 이성을 해하려고 한 일부터 화양을 해쳐 그 죄를 이성에게 뒤집어씌운 일까지 바로 자백하였다.

‘장씨가 마음이 좁은 여자여서 이미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간교함이 이 정도일 줄은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

생각이 이에 미치자 소리를 높여 꾸짖었다.

“너의 간악한 피로 명공의 집안에 화란을 짓고, 요악한 도사와 결탁하여 그 화가 국가에까지 미쳤다. 또한 너의 주인을 아주 못된 아녀자로 만들었으니 어찌 죽음을 면하겠느냐?”

말을 마치고는 노비를 명하여 지저 죽이는 형벌을 더해 죽였다. 장씨는 아들의 얼굴을 보아 ㉠ 후원 냉옥에 가두었다가 개과천선하기를 기다린 후 다시 처치하고자 하였다. 이때 장씨는 자기 허물이 온 나라에 시끄럽게 드러나자 크게 부끄러워하며 사람을 멀리하였다.

한편 열한 살인 이무는 모든 일에 어른처럼 노련하였다. 이 일을 당하니 마치 벼락에 온몸이 부서지는 듯하였다. 어머니 장씨의 허물이 이처럼 심한 것에 새롭게 놀라며 부끄러워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죄를 받은 어머니를 보살필 사람이 없음을 알고 목숨을 유지하다가 아버지 이영준의 분노가 조금 가라앉자 이성과 함께 나아가 울며 말하였다.

“소자들은 천륜의 죄인입니다. 엇드려 바라오니 아버님께서는 어머니의 망극한 죄를 더하지 마시어 불초한 저희들로 하여금 만고의 죄인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말을 하며 눈물을 비처럼 흘리니 그 효성스러운 거동이 사람의 분한 마음을 봄눈 녹듯이 사라지게 할 정도였다.

- 작자 미상, 「화산기봉(華山奇逢)」 -

\* 개용단: 마음 먹은 대로 모습을 바꿔 주는 묘약.  
\* 멸문지화: 한집안이 다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재앙.

42.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영준은 직접 화양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성을 의심했다.
- ② 장씨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다.
- ③ 이영준은 혜랑이 자백하는 척하며 장씨를 모함한 것을 꾸짖었다.
- ④ 이성은 화양이 습격을 당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그녀에게 주의를 주었다.
- ⑤ 혜랑은 이성과 화양의 불화가 자신의 계획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43.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외양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인물을 회화화하고 있다.
- ② 꿈과 현실의 교차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있다.
- ③ 대화와 삽입된 노래를 통해 인물들의 심회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비현실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개입하여 사건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44.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이성이 화양의 태도를 확인하고 화양에게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곳이다.
- ② ㉡은 신광 법사가 혜랑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이동한 곳이다.
- ③ ㉢은 신광 법사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조금씩 행동하는 곳이다.
- ④ ㉣은 이영준과 이성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 차이를 드러내는 곳이다.
- ⑤ ㉣은 장씨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도록 이영준에 의해 보내진 곳이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화산기봉」에서 주인공의 혼인은 계모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계기가 된다. 이로 인해 가문 전체에 위협이 되는 사건이 초래되지만, 주인공은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여 위기에 대응한다. 한편 이러한 갈등의 해결 과정에서 가족 외 인물은 갈등 유발의 책임이 전가되어 처벌되는 반면, 가족 내 인물은 유교적 윤리를 바탕으로 포용의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가문의 안정을 지향하는 사대부의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 ① 장씨가 왕실의 사람이 된 이성을 경계하여 계교를 꾸미는 것을 보니, 주인공의 혼인으로 인해 계모와 주인공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군.
- ② 화양이 이성을 원망하는 정 상궁을 질책하는 것을 보니, 가족 내 갈등이 유발된 책임을 가족 외 인물에게 돌리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장씨와 혜랑에 의해 이성이 누명을 쓰는 일이 멸문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니, 계모가 일으킨 사건이 가문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④ 이성이 신이한 침술로 목숨이 위태로운 화양을 소생시키는 것을 보니, 주인공이 비범한 능력을 통해 급박한 상황에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이무와 이성이 장씨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보니, 효라는 유교적 윤리를 바탕으로 악행을 저지른 가족 내 인물을 포용하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